

예술가와 친구들

황인
미술평론가

곽남신은 1953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부친 곽노철은 정자옥백화점(해방 후 '미도파'가 됨)에서 근무하다가 군산 세관 중국무역선 통역사로 일했다. 부친은 짚을 때 만주와 상해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 중국어를 잘했다. 안동 출신의 모친 김봉희는 군산 도립병원 간호사였다.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형인 통역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6·25 전쟁이 끝나자 곽씨 일가는 군산의 월명동 적산가옥에 터를 잡았다. 1959년, 곽남신은 군산 금광국민학교에 입학했다.

1961년 부친이 서울 종로구 광교 근처에 제과점을 개업했다. 곽씨 일가는 안국동에 터를 잡았다. 곽남신은 수송국민학교로 전학했다. 곽남신이 6학년 되던 해, 합정동 주택단지로 이사했다. 곽남신의 목가적 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시 합정동은 논밭 일색이었다. 군산 시내인 월명동, 서울 한복판인 안국동에서 도시 아이로 자란 곽남신에게는 생소한 환경이었다. 논두렁을 따라가며 개구리·메뚜기·우렁이를 잡았다. 망원동 강가로 나가 조개를 잡았다.

합정동 주택단지의 이웃으로 수필가 피천득(1910~2007)이 살고 있었다. 피천득의 부인과 곽남신의 모친은 사이가 좋았다. 나중에 일진그룹의 회장이 되는 젊은 사업가 이진규(1940~)도 근처에 살면서 곽남신 일가와 각별한 관계를 맺는다. 나중에 미대생이 된 곽남신은 그 집 자녀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이진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곽남신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피천득의 소개로 곽남신은 승문중·고등학교 교장 서기원을 만나 승문중학교에 입학했다. 2등으로 입학했다. 승문중 미술 교사 이광하(1942~2020)는 곽남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술을 권했다. 미술반에 들어갔으나 불량한 선배들에게 실망했다. 동등이 50대를 맞고서야 미술반을 나올 수가 있었다. 미술의 꿈이 다시 썩었다. 승문고 3학년이던 해 6월, 미술 교사 이상락의 소개로 흥악대 강사 최명영의 화실에서 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린 석고상 아그리파는 2절지 종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한가운데 조그맣게 몰아서 그려진 이상한 그림이었다.

김기린, 곽남신의 서울행 항공권 사줘

1971년, 흥악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동기로는 지석철·장석원·김강용·이석주·정덕영 등이 있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미술 교육에 실망했다. 2학년 때 서양화과를 자퇴했다. 독학으로 문학과 미술을 공부했는데 한계가 왔다. 1973년, 흥악대 미대에 재입학했다. 고영훈·이일·이상남·김장섭 등과 동급생이 되었다.

당시 현대미술을 하는 화가들에게 판화가 유행이었다. 판화는 뉴미디어로 인식되었다. 1974년, 흥악대 재학생이던 고영훈·김선·김용익·김장섭·이상남·이인화·이일·장석원 등과 함께 미국문화원(USIS) 화랑에서 열린 '판화 10인전'에 출품했다.

1976년, 공군 방위병으로 제대했다. 곧바로 복학하면서 형제 세 명이 동시에 등록금을 내어야 할 상황이라 복학을 일년 미루었다. 흥대 정문에서 극동방송으로 가는 길 음의다방 카타리나 건물 2층에 화실을 구했다. 카타리나는 토페의 기운이 진하게 배인 바였다. 거기서 100미터쯤 더 가면 샌드파이퍼가 있었다. 디자인과 선배가 운영하는 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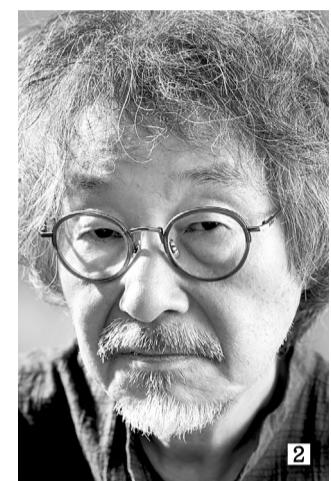
곽남신은 가끔 그 집에서 애플와인 파라다이스를 마셨고 음악도 들었다. 박기태와 근처에서 화실을 하던 이석주가 곽남신의 화실을 자주 찾아왔다. 카타리나에서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곽남신의 작업실로 올라와 기타를 치기도 했다. 저녁마다 시장통 아니면 공원 앞(나중에 계단집이 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화가 박고석의 아들이자 건축가 김수근의 조카인 박기태 덕분으로 공간사랑을 무상으로



역을 해주었다. 당시 보자르는 28세, 아르데코는 30세까지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한 달만 지나면 곽남신은 31세가 되고 입학의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 교수들은 곽남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는 그림 실력에 감탄했다. 첫해는 실기만 하고 불어 소통이 가능해지는 이듬해부터 이론수업을 들으라는 조건으로 입학했다. 전공은 판화를 선택했다. 교수는 곽남신에게 그림자 작업을 계속할 것을 권했다. 그걸 하지 않으려고 온 파리가 아니던가. 독한 결기로 '그림자'를 버렸다. 1986년 11월 아르데코를 졸업했다.

파리에서 김기린·신성희·정현·김원방·유재길·오병숙·이현우·장승택 등과 교류했다. 도불하기 전 서울 견지 화랑에서 김기린(1936~2021)의 개인전을 보았다. 겸은 바탕에 겸은 점이 감동적이었다. 파리에서 김기린은 미술품 복원 일을, 부인은 도서

관 사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김기린은 곽남신을 불러 '지고'라고 하는 양다리 고기를 요리해주었다. 후배를 위해 네댓 시간 동안 요리를 하며 맛있는 와인을 고르는 김기린의 표정은 늘 따뜻했다.



홍대 입학·자퇴·재입학 곽남신 파리 유학선 '그림자'도 버렸다

로 출입하며 많은 공연을 보았다.

복학하여 윤진섭·장경호·최민화 등을 교우로 만났다. 여기에 정현·김수자 등이 가세해 카타리나 2층의 화실을 드나들었다. 1980년, 이대부속중학교 미술 교사였던 김용익과 함께 화실을 개설하면서 카타리나 시대는 끝났다.

1977년, 곽남신은 흥악대 학술예술상 평론 부분에 '대중은 불청객인가?'라는 평론으로 당선했다. 미술평론가 이일이 심사위원이었다. 1979년 대학을 졸업했다. 이일은 곽남신에게 미술이론을 공부할 것을 권했으나 곽남신은 1980년 흥악대 대학원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이 무렵 곽남신은 그림자 시리즈로 화단의 주목

1971년 홍대 미대 수석으로 입학

그림자 시리즈로 화단 주목받아

박서보, 파리 유학길 추천서 써줘

전공은 판화로…김기린 등과 교류

귀국 후 홍대·한예종서 교수 지내

2024년 '덫에 걸린 그림자' 개인전

을 받았고 유명세를 치렀다. 여러 전시회에 초대 받았다. 그림자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계속되는 전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변화하면서 서울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1984년 4월, 유학을 결심한 지 3개월 만에 파리에 도착했다. 학교에 지원하면서 서울의 알리앙스에서 불어를 배웠다는 증명서가 필요했다. 불과 3개월의 수업으로는 알리앙스에서 증명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일은 곽남신이 대학에서 불어 수업을 받은 바가 있다고 증명서를 써주었다. 그 증명서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박서보가 추천서를 써주었다.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아르데코)의 인터뷰는 곽남신을 따라 아르데코까지 온 한국인 친구가 통



1 추락연습, 합판, 네온, 가변크기, 2014. 2 곽남신. 3 1983년 일본 동경도미술관에서 곽남신(앞줄 원쪽에서 세번째)이 이우환·박서보·윤형근 등 동료들과 함께했다.

(사진 곽남신)

매체 실험 왕성 … 이중섭미술상 수상도

1988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피카소의 젊은 시절 작업실이었던 몽마르트르의 에스파스 바또라부아르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그 개인전에 가진 돈을 다 썼다. 김기린이 곽남신의 서울행 항공 티켓을 끊어주었다.

1990년, 몇 해 전에 신설된 흥악대 미술대학 판화과의 교수가 되었다. 1995년은 판화계가 분주했다. 3월에 서울판화미술제가 열렸다. 곽남신은 젊은 판화가들과 함께 '내일의 판화'를 결성하여 창립 전을 열고, 11월에 판화 동인 잡지인 '프린트 비전' 창간호를 윤익영·정영복·김용식 등과 함께 발간했다. 서울판화미술제를 주관하는 판화미술진흥회에서 발간한 무크지 '판화' 제1호에 '인터뷰 피에르 솔라쥬와 크리스티앙 라베 대담'을 번역하여 실었다. 1997년, 흥악대를 사임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가 되었다.

2024년에는 흥악대 후배 이인범이 큐레이팅을 맡은 '더 스페이스 138'에서 개인전 '덫에 걸린 그림자'를 열었다.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는 전시회였다. 2025년에는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다. 곽남신은 또래의 동료들과 비교하면 매체의 실험이 매우 왕성한 작가다. 곽남신은 초기에 선풍기·나뭇가지 등 현상의 그림자를 그리며 두각을 드러내었다.

현상은 본질의 그림자다. 그림은 현상을 그린다. 그렇다면 곽남신은 현상이라는 그림자의 그림자를 그렸던 셈이 된다. 곽남신의 전공이었던 판화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뉴미디어 작업은 그림자의 그림자 작업이다. 일찍 곽남신이 캔버스에 절묘하게 표현했던 그림자가 판의 전자 혹은 모니터의 빛과 어둠으로 표현될 뿐이다. 곽남신이 미술의 본질을 향한 질문의 형식으로 던졌던 '그림자'는 세월이 흘러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여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구사하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과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시립교향악단 402회 정기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 '만남'

일시 : 2026-01-1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